

KOREAN
CLASSICAL
MUSIC

이제 우리 음악을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성기련 | 한국교원대학 음악교육과 교수

많은 이들이 우리 음악을 제대로 향유할 능력과 기회를 얻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 현실의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그리고 우리 한반도 전체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했던 일본이라는 나라를 한 원인으로 꼽게 된다. 일제 강점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근대 학교교육의 음악 교과(처음에는 창가라고 하여 주로 노래를 가르쳤다)에 전통음악을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樂·歌·舞를 사랑한 우리 민족

독도 문제로 한반도가 뜨겁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깝고도 먼 관계야 새삼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윤사마 배용준을 필두로 한 한류(韓流) 바람이 일본에도 불기 시작하고 니폰 필(Nippon feel)이라고 해서 일본 대중문화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소개되기 시작하던 이 시점에 독도 영유권을 일본이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참 묘한 일이다.

더구나 '한일 우정의 해'라고 해서 각종 문화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한일 문화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가 기대되던 2005년에 말이다. 이 독도 사태가 우리 민족에게 끼치고 있는 영향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대외적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한민족이 하나라는 인식이 커지고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이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여야도 거국적으로 함께 일하려는 노력들을 보인다.

우리가 이렇게 대외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본시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며 같은 사유체계를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악학궤범」 서문에 이르기를 노래는 말을 길게 하여 율을 맞추는 것 즉 “加所以永言而和於律”이라고 했다. 같은 언어를 써온 우리는 같은 노래와 음악을 사랑해 왔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같은 사유체계뿐 아니라 감수성 면에서 항상 통(通)해 왔다. 이를 확인시켜 주는 여러 사료 중 하나는 중국의 진수가 지은 「삼국지」 동이전에 기록된 제천행사에 관한 것들이다. 다음 기록들을 보면 중앙국가 수립 이전의 부족국가 시절에도 우리 선조들은 부여에 살건 고구려에 살건 삼한 지역에 살건 樂·歌·舞를 유달리 즐겼음을 알 수 있다.

부여에서는 정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국중대회에서 며칠 동안 음식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는데

데, 그런 의식을 영고라고 한다.

고구려의 백성들은 노래와 춤을 즐겼으므로, 나라의 고을과 마을에서 밤에 남녀가 서로 어울려 노래와 유희를 했다. (중략) 10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국중대회를 동맹이라고 한다.

예에서는 늘 10월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는 낮과 밤에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을 추었는데, 그런 의식을 무천이라고 한다.

한(韓)에서는 늘 오월에 씨를 뿌리고 나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술을 마시면서 밤낮을 쉬지 않았다. 그 춤은 10여 명이 일제히 시작하여 서로 따르면서 땅을 높고 낮게 밟기도 하는데, 손과 발이 서로 박자에 잘 맞으므로, 탁무(鐸舞)와 비슷한 데가 있다. 시월에 농사가 끝나면, 오월의 행사 때와 같이한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樂·歌·舞를 사랑하고 즐겼던 우리의 민족성은 지금도 여전하다. 유명한 클래식 음악 연주거나 유명한 발레단이 내한공연을 오면 아무리 고가이더라도 표가 매진되고 이런 공연문화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도 하다 못해 가끔 노래방이라도 찾아 대중가요나 팝송을 부르며 음주가무를 즐긴다. 다만 바뀐 것이 있다면, 樂·歌·舞의 내용이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전통음악이며 전통무용과 친하지 않을 뿐이다. 판소리 창자의 재담이 어색하고 전통음악은 어렵기만 하다. 왜일까?

우리의 귀를 가로막는 서양음악

한국음악의 이해 혹은 한국 전통음악의 이해류의 강좌

가 증설 또는 신설되는 대학교가 늘고 있다. 이런 강좌를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수강신청을 한 이유를 물으면 답변이 크게 두 가지이다. 한 부류는 강의 시간이 잘 맞아서 또는 학점을 잘 줄 것 같아서와 같은 실용적 목적을 가진 학생들의 답변. 또 한 부류의 학생들은 우리 음악에 관심이 있음에도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우리 음악을 알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친해지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관심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우리 음악을 잘 알고 싶은 마음. 이들에게 일단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 음악과 친해지는 데에 한 학기면 충분하다고 말해 준다. 시작은 그야말로 반으로, 충분한 의의가 있으니 말이다.

모든 학생들이 한 학기 수강 후 우리 음악과 친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은 우리 전통음악을 더 이상 어렵게 느끼지 않고 적어도 한 번 친해질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말을 길게 하여 만들어진 노래며, 그 노래를 반주했던 기악 반주며, 그 노래에 맞추어 추던 춤인 우리 전통적 樂·歌·舞와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친해지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귀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아이적부터 TV며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와 길거리에서,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학교 음악시간에, 그리고 방과 후에는 동네 음악학원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들어온 서양음악이다.

독일 음악학자 C. Kaden은 서양음악이 타 문화권의 음악문화와 구별되는 세 가지 요소가 기보법, 화성, 피아노라고 했다. 우리는 서양음악 문화권이 아님에도 대부분의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 세 가지 요소와 매우 친하다. 그런데 20대가 다 된 학생들이 서양음악의 이런 요소에 대해 느끼는 친숙함은 우리 음악을 제대로 들어보려는 이들의 귀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대표적인 예가 화성이다. 화성이 깔린 음악에만 익숙했던 우

리 대학생들은 각 악기의 단선율이 어우러져 묘한 다성(多聲)의 매력을 만들어내는 우리 음악을 처음 들으면 왠지 허전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듯하다.

또한 피아노라는 악기 역시 우리 학생들의 귀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고가인 데다가 거대한 악기인 피아노, 하지만 웬만한 중산층 이상 가정의 응접실 한구석에 장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동네 피아노 학원에도 여러 대가 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피아노 내지는 피아노 소리를 접할 기회가 많다. 문제는 피아노라는 악기가 평균율이라고 하는 음정 산출법에 맞춰서 한 옥타브(octave)를 12개의 반음으로 균일하게 나눈 소리를 낸다는 데에 있다. 피아노 음정에 아주 익숙해진 아이들은 반음과 반음 사이의 미세한 음 진행을 잘 듣지 못하고, 이런 채로 성장하여 어른이 되면 우리 전통음악은 듣고 싶어도 잘 들을 수 없는 음악이 되고 만다.

음과 음을 쪽 뺏어내지 않고 흔들어 내고 꺾어주고 흘러내려 주고 밀어 올려주는 시김새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음악을 들어도 반음 사이, 온음 사이의 그 무수히 많은 미분음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 학기 강의 후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일단 알고 나면 많은 학생들이 우리 음악에서 각자 매력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태어나 김치라는 음식을 먹어 보지 못했던 교포들이 금세 김치의 맛에 끌리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일까.

많은 이들이 우리 음악을 제대로 향유할 능력과 기회를 얻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 현실의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그리고 우리 한반도 전체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했던 일본이라는 나라를 한 원인으로 꼽게 된다. 일제 강점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근대 학교교육의 음악 교과(처음에는 창가라고 하여 주로 노래를 가르쳤다)에 전통음악을 배



벨칸토 창법과 국악 관현악의 조우

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우리 언어와 우리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도 우리 음악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우리 탓이다.

근대 시기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시련인 일제 강점기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일본이 우리 스스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게 한 영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전통음악을 알고 싶어도 초·중·고교에서 전통음악을 들어보고 배워볼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것은 우리 탓이다.

진정 조기 교육이 필요한 우리 음악

말이 없으면 민족의 뿌리가 없는 것이라고 했듯이, 우리 음악이 없어져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흔들린다. 이 땅의 학교에서 음악교육이 시작된 지 100여 년 만에, 그리고 일제 강점기가 끝난 지 50여 년이 지나서야 음악 교과서에 사라져 갈 뻔한 우리 음악이 실리는 비율이 40%로 올라갔다. 겨우 서양음악과의 공존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었다. 우리 음악을 알고 싶어도 그럴 기회가 없었던 이 땅의 학생들이 음악적 감수성이 형성되고 있는 청소년기에 우리 음악을 접해볼 기회가 상대적

한껏 여유를 부려도 좋은 음악, 언제 부르고 들어도 편안한 우리 음악.
그런 우리 음악을 더 늦기 전에 어린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칠 때이다.
지금의 어린 세대가 자라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 전통음악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할 때는 이미 늦을지도 모른다.

으로 많아진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전통음악의 교과서 수록 비율이 아니라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이다. 일선 학교의 음악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들 혹은 교사 지망생의 대부분이 우리 전통음악보다 서양음악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온 세대이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것 또한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많은 선생님들은 열심히 연수를 받고 또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서 교육현장에서 우리 음악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노력한다.

학교에서 왜 우리 음악을 가르쳐야 하느냐고 되묻는 음악 전공자들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음악 교육에 열심인 교사 또는 교사 지망생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 미래가 생각처럼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로 교생실습을 나갔던 교사 지망생은 단 2차례의 수업만 하고도 학생들이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을 잘 따라 불렀다고 했다. 단순히 시조의 가락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장단과 시김새를 손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골똥히 연구한 교습법이 좋은 효과를 낸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대학생들의 경우 시조의 초장을 잘 부르려면 대개 더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과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하다.

음악 교과서의 기말고사 곡으로 서양 가곡 대신 우리 판소리의 사랑가를 택했던 교사도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다. 우리의 말에 자연스런 울음 붙인 〈아니리〉와 남녀간의 사랑을 아기가 표현한 〈사랑가〉의 가사와 곡조를 부르며 학생들은 상당히 재미있어 했고 또 편안해했다고 한다. 서양 가곡처럼 정확한 음정으로 또박또박 박자를 지켜가며 부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연령층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

리고 감수성이 더 예민한 시기일수록 우리 음악을 편안하게 익히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 또한 짧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초기 교육 열풍이 갈래를 불문하고 불고 있는 요즘, 진정 초기 교육이 필요한 분야는 우리 전통음악인지 모른다. 음정 걱정을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맘껏 자신의 소리에 실어도 된다. 그리고 '강-약 또는 강-약-약'의 일정한 강세를 지켜 똑같은 템포로 부르지 않고 한 장단 내에서 살짝 늘어졌다 살짝 빨라졌다 해도 좋다. 바늘 끝만큼의 여유를 부려도 되는 것이다.

고 이성천 교수는 한국음악의 개성을 여유라고 했다. 여유가 공간적 개념에 적용되면 동양화처럼 여백의 미를 만들어내지만 시간적으로 적용되면 우리 음악처럼 여음의 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간이 심심하게 된 음식은 처음에 싱거워 입맛을 다시게 하지 못하지만 여러 순갈 떠먹다보면 음식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입이 담백한 음식과 친해지려면 적응기가 필요하듯, 우리 음악을 들으며 여유롭게 음 하나하나를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음미할 수 있으려면 대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번 입맛을 찾으면 각 음식 재료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듯이, 한 번 제 감각을 찾으면 우리 귀도 우리 음악의 여유로운 풍류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껏 여유를 부려도 좋은 음악, 언제 부르고 들어도 편안한 우리 음악.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그리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우리 민족의 문제가 되자 정부는 국사 교과를 수능과 국가고시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어린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칠 때이다. 지금의 어린 세대가 자라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 전통음악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할 때는 이미 늦을지도 모른다. 